

로와정 개인전에 부쳐

글. 김인선

로와정 작가는 노윤희, 정현석 두명으로 구성된 듀오 작가의 활동명이다. 이들에게는 두 명의 관계성에 집중하여 작업을 만들어 냈던 시기가 있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드러내면서 논쟁과 협의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서로를 표현하는 이미지, 상징적 행위, 언어, 혹은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2017년 예술공간 아마도에서의 개인전에서 듀오로서 읽히는 방식을 더 이상 취하지 않았고 한 명의 작업처럼 온전하면서도, 작업의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전시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 만들어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이번 전시에서는 그 행위의 물리적 과정과 시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이를 점차 발화시킨 결과로서의 작품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처음 로와정 작가의 전시를 제안받았을 때, 지금까지 보아온 로와정 작가의 작품은 어떤 전시에서든 조용하지만 독특한 감각을 발휘하고 있어서 눈에 띄었고 이 작가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던 터라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나로서는 고마운 제안이었다. 전시 제안은 예술공간 아마도를 운영 중인 김성우 큐레이터로부터였다. 곧 이 전시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작가가 윌링앤딜링에 방문하였다. 그들은 그 당시에 전시에 대한 구상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뿐더러 전시 기간 중에 뭔가 점점 만들어질 것이라 전시 초반에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전시는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방문하는 관객들은 다른 모습의 공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니 전시를 결정하고 일정이 확정되었을 당시는 전시를 시작하기로 한 열пят 일 년 전이었으나, 다른 기존의 전시때와는 달리, 이미 전시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몇 개월 후 작가들이 중간 계획을 가지고 왔다. 그들이 두어 개 기관에 2018년도 개인전 기금을 신청한 직후였다. 꽤 비용이 드는 전시가 될 수 있어서 별도의 기금을 추가로 받지 못한다면 세부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전시 자체가 점차 만들어지는 형식이라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신청을 위하여 결과물을 예상하여 이 전시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별도 지원을 받기위한 거대한 모순을 지닌 채 작성된 전시 계획에 대한 텍스트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전시기금은 받지 못했다.

기실 이들의 실패한 텍스트는 전시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만담>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들의 공간은 우선 아무것도 없음, 다음 단계로 작가와 공동 기획자의 주고받는 퍼포먼스, 마지막으로 이를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여 만든 작품, 이 세가지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만담>의 주제는 '코미디'였고 최종적으로는 아무런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 세 사람의 반복되는 말버릇을 보여주는 화면만이 공허하게 전시 공간 속 메아리가 되었다. 코미디를 주제로 삼은 이들이 <만담> 퍼포먼스 중에 슬그머니 고집어냈던 이야기는 이 전시에 대한 실패한 계획서, 즉 시스템이 요구하는 전시 형식 서술을 작성하지 못했던 그들의 전시 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윌링앤딜링 공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모종의 행위들은 수없이 맞닥뜨리는 변수를 수집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미리 예측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말할 수 있다면 굳이 특정 공간 안에서 직접 물리적인 수고를 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 것이 이 전시의 특징일터이다. 결과적으로 작품은 <만담>, <떼어내기, 붙이기>, <구부리기, 펴기>, <움직임>, <드로잉>, <그리기, 찍어내기> 등 행위 자체를 지시하는 제목으로 지칭된다. 현실은 전시 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전시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최소화하고, 세세한 증빙을 통하여 예상했던 결과물이 오차없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공적 기관의 심사는 소위 가장 공정하게, 작가들을 너무 잘 알아서도 안된다. 즉 우연적이거나 예상하지 않은 변수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텍스트는 애시당초 불가능하였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전시는 기본적인 매뉴얼 아래 진행된다. 작가, 작품, 관객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흔히 상상하는 벽면 혹은 공간의 설치물로부터 기획자는 텍스트를 생산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게 할지 연구한다. 작가에게, 관객에게, 그리고 기획자에게 존재하는 자신만의 매뉴얼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전시는 공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전시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워낙 완성된 형식이다. 작가의 손으로부터 더이상 만져질 것이 없는 작품이 들어왔고, 완성된 그 무언가를 대면하기 위하여 준비된 관객이 들어왔으며, 기획자는 공간에 연출된 완성된 배치와 완성된 개념을 정리한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안내한다. 허나 작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작가마다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예측 불가하고, 발상의 전환과 실험,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는 예술작품의 제작 과정에 정확한 예측이라는 것이 애초에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로와정의 전시 <sunday is monday, monday is sunday>는 그들이 전시 공간에서 만들고 있는 작업 과정이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모종의 원리에 아주 가까이 닿아있는 행위를 상기하게 한다. 이 전시에서 관객은 완성된 것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작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방문한다.

<sunday is monday, monday is sunday>라는 전시 제목은 주 단위의 달력에 표기된 요일 중 가장 먼저 표기된 요일과 가장 뒤에 표기된 요일을 골라서 만들 것이다. 이 두 개의 요일은 분리되어 있으나 연속적이다. 이 전시를 통하여 로와정 작가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공간 속에 시간에 대한 세 개의 축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재료, 행위, 완성된 결과물의 단계와 맞물리는 동시에

각각의 작품이 이 세가지 단계와 어긋나게 중첩된다. 일반적인 전시의 형태, 즉 작품의 재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 단계를 지나 이를 전시 공간에 적당한 위치에 연출하는 기존의 전시 방법을 이번에는 이 모든 기존의 과정 자체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이 세 개의 단계가 전시 공간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관객은 이 모든 시간의 축을 혹은 이 중 하나의 축 혹은 다수의 축을 볼 수 있다. 애당초 '시간'이라는 개념은 '순서'를 염두에 둔 어떤 것이었을 터이다. 뭔가가 일어나야지만 그다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연속적인 시작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그 끝이 존재할 터이다. 그것이 흔히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었을 것이다.

로와정 작가가 제시하는 시간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시를 위한 특정한 '공간'은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작업을 위한 재료 단계의 어떤 것이 위치하고, 이를 다루는 구체적인 과정이 위치하고, 그리고 이를 완성한 또 그 무엇이 위치하는데 실제 관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관객은 세 개의 시간의 축을 체험하기 위한 특정 공간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이번 전시 <sunday is monday, monday is sunday>가 행해지는 중심 공간으로 설정되어 특별한 시공간을 제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작품을 온전히 대면하기 위해서는 관객들도 꽤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였다. 적어도 전시 기간 중 벌어지는 몇 가지 퍼포먼스들에 참여하여 눈으로, 혹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작품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전시였다. 작가의 고행만큼은 아니지만, 이 적지 않은 수고가 요구되는 관람객으로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는 몇 명이나 될까. 작가는 막상 이러한 조건을 두고 묵묵히 일할 뿐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든 그들이 우연히 맞닥뜨리고 과거에 벌어졌던 윌링앤딜링에서의 전시에 대하여 우연한 어느 시점에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당시의 서로 다른 체험을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다중적인 시간대가 새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 멀리 있는 결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었을까.